

글 | 정여울

어릴 적 배갯머리에서 행복한 수면제가 되어주던, 결코 마르지 않는 이야기보따리들. 그 속에는 인간 이외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숨어 있다. 착한 공주와 멋진 왕자보다 아이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것은 꽃감을 두려워하는 호랑이, 정글소년의 친구가 되어주는 곰과 표범, 해저왕국의 권력에 맞장 뜨는 영악한 토끼, 빨간 망토 소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잔혹한 늑대다. 동물원 철책에 갇힌 맹수들에게도 서슴없이 말을 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에게 동물과의 원초적 의사소통의 욕망이 잠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내러티브는 이솝우화나 전래동화를 비롯한 각종 애니메이션과 소설을 통해 여전히 풍요로운 판타지의 보물창고로 살아 숨쉰다. 동물은 자연과 소통하는 감각의 열쇠를 잃어버린 근대인의 마비된 촉각을 불러 깨우는 메신저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소통의 매듭을 풀어준 동물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늘 친근하면서도 매혹적이다.

동물의 알레고리는 인간의 욕망을 예들러 말하기 위한 우회로가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일 것이다. 《금수회의록》은 철저히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계몽의 프로젝트를 꿈꾸는 목소리로 충만하다.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부패를 도려내기 위한 풍자를 위해 끌어들이진 동물 캐릭터는 뜻밖에 흥미진진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동물들은

저마다 동물의 약점을 꼬집는 사자성어를 들고 나와 인간의 추한 욕망을 성토했다. 《금수회의록》에 등장하는 동물캐릭터는 동물 자체의 욕망과 언어를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야기로 읽힌다. 저마다 알록달록한 개성과 외모, 그리고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인간의 행위를 질타하는 동물들. 그들의 언어를 경청하는 독자는 웃음과 함께 돌아나는 투명한 부끄러움과 만나게 된다. 자연과 소통하는 지혜로 쓰이기보다는 자연과 타자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쓰이는 인간 스스로의 도구적 이성과의 참혹한 마주침. 인간에게 폄박받고 도살당하고 사냥당하는 동물들을 통해 독자-인간은 스스로의 내면과 날카롭게 대면하게 된다.

《동물농장》은 《금수회의록》보다 한층 고도화된 인간 욕망의 메커니즘을 극도의 건조한 수사학과 절제된 호흡으로 더듬어 간다. 《동물농장》은 출판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연될 만큼 출판사들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시대적 검열의 울타리에 휩싸인다. 《동물농장》 어디에도 실존하는 인물이나 직접적인 현실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동물농장》이 좌절된 소비에트 혁명의 파시즘에 대한 우회라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한없이 투명한 암호였던 셈이다. 그러나 《동물농장》이 베스트셀러를 뛰어넘어 어엿한 고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시대적 특이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웰 역시 《동물농장》이 “독재 일반에 대한 풍자”라고 밝힌 바 있듯이, 《동물농장》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둡게 반복될 ‘배반된 혁명’과 ‘지식-권력의 파시즘’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억압 속에 강렬히 포박된 사람이라면 작가가 아무리 예들러 말할지라도 동물 알레고리가 발화하고 있는 억압의 실체와 은밀히 소통할 수 있다. 동물의 알레고리는 반역의 상상력을 품은 모



인류 꿈공장의 영원한 보물창고, 동물우화

든 독자들에게 작가가 지뢰처럼 심어놓은 은밀한 암호를 치밀하게 풀어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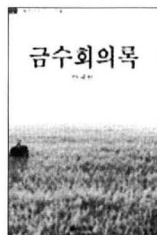
최근의 동물생태학은 점점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도발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동물, 직립보행 동물, 생각하고 말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 '만'의 특이성을 해명하던 개념들은 점점 빛을 잃어간다.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비해 한 단계 아래에 선다는 오만한 명제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파르게 진화하는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소설도 생물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화적 상상력은 단순히 인간욕망의 우회로나 정치적 검열의 포획망을 뚫는 수사적 무기가 아니다. 인간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왔던 기존의 일반적 우화의 관점 자체를 뒤엎는 시각의 전복이 문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김형경의 최근 장편 《성에》(푸른숲, 2004)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성에》는 주로 1인칭과 3인칭으로 시점을 확보해 왔던 기존의 소설 문법에 도전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 나아가 '바람'이라는 무생물의 시선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손으로만 인간을 말해 왔던 단편 상상력을 넘어서는 《성에》의 실험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목숨을 내놓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이유가 '세계일주'라고 말하는 북한 출신의 한 남자, 가족을 모두 잃은 후 '스위트홈'이 지상의 과제가 된 다혈질의 사내, 인디언 여인처럼 자연의 모든 세포와 날날이 소통하는 여자 사이에 일어난 살인의 미스터리. 모성적 공산주의를 꿈꾸는 듯 보이는 세 사람 모두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된 시점에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참나무, 청설모, 박새, 그리고 심지어 무생물인 '바람'이다. 이 소설은 인간중심주의적 시선이 포획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욕망의 자화상을 동물과 식물, 무생물의 시점에서 점층적이고 역동적으로 복원해내고 있다.

참나무는 여자의 등장이 모든 불행의 사단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박새는 짝짓기에 탐닉하는 수컷들의 본성에 죽음의 욕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청설모는 동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복잡미묘한 정서,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된 감정의 영역-성적 파트너에 대한 질투, 세계일주를 하겠다는 남자의 꿈, 스위트홈만이 자신의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사내의 욕망 등등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는다. 한편 '무생물'인 바람은 "그들이 열거한 모든 이유가 한정된 육체 속에서 유한한 생을 살아야 하는 생물들의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새끼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토록 절박하게 짝짓기를 향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고, 불멸에의 욕망이 없다면 그토록 초조하게 자식을 갖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수화된 생물, 무생물의 시점으로 인해 인간의 욕망은 도식적 인간중심주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굴절을 겪게 된다.

동물은 '문명'의 격자로 스스로의 삶을 구획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문명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욕망과 상상력을 길들이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인간은 소비, 물질, 금기, 법률의 빗장이 없는 곳에서 인간보다 자유롭고 인간보다 처절한 긴장 속에서 자연과 완벽하게 밀착되어 살아가는 동물들을 통해 세상을 되비춰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 스스로의 눈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욕망과 사랑과 유토피아를 굴절하는 형형색색의 구부러진 거울. 이것이 바로 동물 알레고리의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 아닐까. **추천**



이 글을 쓴 정여울은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미디어헌터'로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고,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book+ing, 책과 만나다》《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